

## 30장(1) 분향단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관한 것부터 기록하고(25:10-22), 성소와 관련하여서는 ‘진설병상’ 과 ‘등대’ 만을 언급한다(25:23-30, 31-40).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향단’ 은 25장에 나오지 않고 30장에 이르러서야 나온다. 25-27장에서는 성막의 건설에 관하여, 28-29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제조하는 법과 제사장 임직식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30장에서야 비로소 분향단에 관하여 언급한다. 성막 건축의 관점에서 기록하였다면 분향단에 관한 내용은 순서상 25장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찬찬히 생각하게 된다.

### 1. 분향단의 구조 (30:1-5)

분향단은 가로와 세로가 1규빗(45cm), 높이는 2규빗(90cm)이고 네 귀퉁이에 뿔이 있다. 분향단 전체는 정금으로 싸였고 아래에는 채를 켈 수 있는 금으로 된 고리가 있었다.

분향단에는 능력을 상징하는 뿔이 네 귀퉁이에 있는데,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도 이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두 단은 모양에서만 아니라 기능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소제를 번제단에서 드리는 시간에, 당번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살랐다. 이것은 같은 시간에 성전 뜰에서 드리는 상번제(常燔祭)를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으로 표시하여 그 제사가 지성소에 계신 여호와께 올라감을 상징한 것이다. 이처럼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은 성전 뜰에서 드리는 제사를 표상하는 것이다(참조. 29:38-46).



### 2. 분향단의 위치와 역할 (30:6-8)

‘분향단’ 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짓는 휘장 바로 앞에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등대’ 와 ‘진설병상’ 이 있다.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물 가운데서 분향단이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분향단의 위치에 관한 열왕기 6장과 히브리서 9장의 기록이 분향단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언약궤와 그룹이 있는 곳을 지성소, 곧 내소(內所)라고 불렀는데 ‘내소에 속한 제단’ 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왕상 6:22-23). 여기에서 말하는 ‘내소에 속한 제단’ 은 분향단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내소에 있는 제단’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소에 속한 제단’ 이라고 표시한 것은 분향단에서 태우는 향이 지성소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 이 있다고 한다(히 9:4). ‘금향로’ 로 번역된 단어는 ‘금 분향단’ 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와 지성소의 건축학적인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분향단의 기능, 곧 거기에서 드리는 향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능을 중심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분향단을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 3. 분향단의 속죄 (30:9-10)

분향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식으로 제조한 향만 살랐는데, 그 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갔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 앞에 상을 두고 음식을 두었으나 성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성도의 제사와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분향단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속죄하였다. ‘속죄’ 라고 번역한 말은 ‘가린다’ 는 말이다. 이스라엘의 부정한 상태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부정함을 속죄제의 피로 정결케 하였다.

## 목상과 실천:

### 분향단의 위치와 의미

분향이 회막 뜰에서 드리는 제사와 연결되고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분향단을 25장이 아니라 30장에 기록한 이유도 알 수 있다. 출애굽기 25-30장에서 성막 건설에 관한 순서를 보면 ‘지성소 - 성소 - 성막 뜰 - 제사장 임직 - 분향단’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순서에는 단순히 건축학적인 과정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순서는 점층적이다. 성막을 잘 건설하였으나 거기에서 봉사할 제사장이 없으면 그 성막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성막과 제사장이 준비되었으나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분향단에서 제사를 상징하는 분향을 하지 않는다면, 성막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 순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초청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동시에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연이 지성소로 향하여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손을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참조 시 141:2; 눅 1:8-12; 2:37). 여호와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오도록 부르시는 것이다. 상번제에 관한 29장의 교훈이 30장의 분향과 연결된다(출 29:38-46).

분향단과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신약의 우리도 매일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상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자기를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의 기도를 ‘향연’(香煙)으로 표시하였다(계 5:8; 8:4).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복을 구하는 기도는 정하지 않은 향을 피우는 것과 같다. 그러한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가증한 기도를 듣지 않으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신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성막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그 시간에 구약의 성도들은 빈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 우리도 빈손을 들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아오도록 초청을 받았다. 우리의 기도에서 주요하게 생각할 점은 하늘에는 성막과 제사 제도가 가리켰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분의 기도 덕택에 우리의 기도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 30장 (1) 익힘 문제

1. 1) 성막의 성소 안에는 등대와 진설병상 외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1-10절)
- 2)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 무엇으로 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 2 분향단은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
3. 1) 분향단에서 향은 언제 사르라고 하셨습니까? (7, 8절)
- 2) 향단 뿜은 일 년에 몇 번 무엇으로 속죄하라고 하셨습니까? (10절)
4. 분향과 관련된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보십시오.